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선근

'97 부활절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서별로 부활절 축하행사 다채롭게 열려 저녁 찬양예배는 임마누엘찬양대의 '장엄미사' 연주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기쁘고 즐거운 부활절이다. 금년에 이미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주간에 김준규 목사(청주중앙교회 담임)를 강사로 모시고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를 가지고, 금요일은 전 교인이 금식하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활절인 오늘은 새벽부터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였고, 1, 2, 3, 4부예배와 찬양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특별히 1, 2, 3, 4부예배시에는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부활절 감사헌금을 드린다.

또한 오늘 저녁 찬양예배시에는 부활절 찬양의 밤으로 모인다.

이번 찬양의 밤은 임마누엘찬양대(대장 차신득 장로, 지휘 장기범 집사, 오르간 김윤경 집사)가 준비하여 연주하게 된다.

한편 각부서에서는 부서별로 부활절 달걀 콘테스트, 찬송가 경연대회, 부활절 성극 공연, 부활절 특강 등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시간을 갖는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시금석이다. 십자가가 구원의 시작

이라면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의 설교와 전도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수난을 당하심으로써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교회를 세우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정해진 절기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나사로와 여타 인물들이 살아난 것처럼 단순한 소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원한 영광으로 부활하셨다(로 6:9-10; 벧전 1:21).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의 첫 열매이며, 미래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이며,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이 된다(고전 15:20; 살전 4:14).

성도들에게 가장 기쁜 날은 언제인가? 바로 부활절이다. 우리를 붙잡고 있던 흑암의 세력들, 우리를 죄와 사망의 사슬 아래 꼼짝 못하게 했던 그 권세들이 깨어져 나가고, 사망, 저주,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한 날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 되어야 하며, 우리 모두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부활의 축제에 함께 참여하여 단순히 교회 행사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온 가족이 모여 부활의 축제를

가지며, 민족적인 부활절 축제로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청년2부 부활절 특강 '부활 생명을 아는 성도'

청년2부는 부활절을 맞아 부활절 특강을 실시한다. 강사는 박형용 목사(협동 목사, 장년1부 지도, 합동신학교 대학원 교수), 제목은 '부활 생명을 아는 성도'이다.

시간은 오후 12시 30분~2시, 장소는 교육관 514호 청년2부 집회실이다.

전 교인 장학회에 가입을

도성장학회에서는 충현소석장학회의 30억 거금 마련을 위해 전 교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학헌금 봉투를 준비하여 배부한다.

전 교인이 모두 장학회원이 되어 장학회에 가입하여 천국일꾼을 키우는 데 동참한다면 더욱 의미가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영어교육부 성극 '부활하신 주님'

오늘 목지관 지하 1층에서

영어교육부에서는 부활절을 맞아 우리의 죄를 사하해 주시려고 겪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고난과 승리의 부활을 기념하며 성극을 준비하였다.

3월 30일(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개최될 이 성극은 교사 A, 라비나 극본으로 '부활하신 주님'(He Has Risen)이라는 제목으로 Young adult 중심으로 초등부, 중교동부, 성인부, 시온찬양대까지 모두 어울려 준비된 것이다.

피택자 교육 실시

피택 장로, 피택 집사, 피택 권사 교육이 4월 4일(금) 오후 7시 교육관 109호에서 개강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된다. 개강예배를 시작으로 피택자들은 6개월간 교육을 받는다.

1997년도 부활절을 맞으며 부활절 찬양의 밤을 갖는다. 이번 찬양의 밤은 임마누엘찬양대(대장 차신득 장로, 지휘 장기범 집사, 오르간 김윤경 집사)가 준비하여 연주하게 된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함께 하기 위해서 열리는 부활절 찬양의 밤이기에 전 성도가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참석하여 주



부활절 찬양의 밤

임마누엘찬양대, 3월30일 저녁찬양예배시
구노의 '장엄미사' 연주

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구원과 부활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부활절 찬양의 밤에서 임마누엘찬양대는 구노의 '장엄미사'를 찬양하게 된다. 곡중 독창은 소프라노 박미애 선생, 테너 제양길 선생, 베이스 최덕택 선생에, 반주는 임페누엘오케스트라가 담당한다.



고난주간 부흥사경회 지난 주 월요일(3월 24일) 저녁부터 수요일(3월 26일) 저녁까지 고난주간 부흥사경회가 김준규 목사를 강사로 하여 열렸다. 새벽, 낮, 저녁 집회로 모인 부흥사경회는 성도들이 본당을 가득 채운 가운데 시간 시간 말씀의 은혜 속에 진행되었다.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위기가 모두 각 개인의 죄악을 인함임을 말하며 우리 모두의 회개를 촉구하였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성도들은 말씀으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충현장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이상적인 아내

(시편 45:10-17)

1. 이상적인 아내란

(1) 불의한 세상을 끊습니다

이상적인 아내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기울여 듣고 마음에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자기 백성과 아버 집을 깨끗이 잊어버려야 합니다. 본문은 이러한 신부가 일등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영적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내 백성과 네 아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대한민국의 백성됨을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악마의 줄도로 살던 옛날의 죄악을 잊어버리라는 말입니다.

본문에서도 신부의 자격을 말할 때에 불의한 세상과 인연을 끊어야 예수님의 아내될 자격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불의한 인정을 끊고 진리가 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 공의로우신 예수님만을 따라갈 때 예수님의 신부, 성도의 자격이 있습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외롭거나 혹은 어려워도 참아냅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신부가 아름답습니다.

이와 같이 아내의 자격을 갖추면 왕이 그 아름다움을 사모한다고 했습니다. 얼굴의 아름다움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 집을 잊기로 하는 결심과 마음, 남편만을 따르려고 하는 그 발걸음과 행동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얼굴보다 마음이 아름답고 행동이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인간적으로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입으신 옷과 잡수시는 음식은 형편 없었습니다. 또한 상대하는 사람은 세리와 창기들뿐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사람이 보기에는 흠모할 것이 없었지만 실상은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 마음이 아름답고 그 입의 말이 아름답고 행하는 열매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이 아름다운 것처럼 신자도 얼굴보다 마음이, 마음보다 말이, 말보다 행실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 집을 떠나서 불의한 사업을 끊고 오직 남편 되는 예수님만 위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악마의 꾀박을 받으면서도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보다 귀한 아내의 덕입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옛 생활을 정리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잘 살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으로 양반이며 철학을 공부하여 지

식이 많고 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권세가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한 번 뵈고는 세상의 부귀를 분토와 같이 여겨 다 던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 취할 태도입니다.

(2) 남편을 공경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해야 됩니다. 시편 45편은 교인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특별한 시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세상의 풍습을 버리고 죄악을 끊어버린 다음에 예수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경배한다는 말은 공경하면서 절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섬길 뿐만 아니라 절대로 복종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따라 가며 복음 순종하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 훌륭한 아내가 받는 복

(1) 백성의 존경을 받습니다

두로는 큰 무역을 하는 항구 도시인데 그곳에는 지식인이 많았습니다. 그곳의 딸, 두로의 딸이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잘 살고 교양이 많은 사람이 신랑을 바로 섬기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에게 예물을 들고 오겠다는 말입니다. 두로의 딸들이라면 상당히 교만한 여자들인데 예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인 줄 알고 찾아와서 경배하며 예물을 드려니 존경의 표시입니다.

또한 세상의 큰 부자인 두로인들이 솔로몬의 아내에게 와서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그들보다 더 큰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섬기면 세상 사람에게서는 존경을 받고 아울러 영과 육이 부자가 되는 복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 악마의 줄도들이 꾀박을 할지언정 중심에는 존경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 받는 대접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세상과 타협을 하면 당장에는 일이 쉽고 재미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임시로 이용해 먹고는 천대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악마에게 이용당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사람 앞에 천대 받으면 그 사람은 길에 내버려져 밟히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님의 신자들은 꾀박받고 사람에게 매를 맞고 고생을 해도 그들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존경은 받아야 됩니다. 꾀박

이상적인 아내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기울여 듣고 마음에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과 아버 집을 깨끗이 잊어버려야 합니다. 본문은 이러한 신부가 일등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영적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과 겸해서 존경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2) 영화를 누립니다

금으로 수를 놓은 옷이라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옷입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금으로 수를 놓은 사치한 옷을 입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금이라는 것은 가장 보배롭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을 때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신자는 속사람은 물론 겉사람도 단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치하면 안됩니다. 신자는 먼저 속사람의 인격이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어야 합니다. 속사람이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어야 왕궁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세상의 옷을 입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을 왕궁에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전도의 효과를 낸다는 말입니다.

전도는 입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뒤가 더 아름다워야 되는데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은 다음에 예수 믿자고 하면 다 따라 옵니다. 먼저 믿는 사람이 금으로 수놓은 옷을 못입고 죄악이 묻은 옷, 욕심이 묻은 옷, 피 묻은 옷, 남의 눈물이 묻은 옷을 입고 썩은 냄새를 피우면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이 주시는 금으로 수놓은 예복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3)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훌륭한 아내는 자손의 복도 받습니다. 자손은 육적인 자손도 있지만 전도를 해서 믿게 된 영적인 자손도 있게 됩니다.

세상의 복은 권세도 있고 명예도 있

지만 무엇보다 평안의 복이 진짜 복입니다. 이 평안의 복은 당장 우리가 받는 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평안해야 되겠지만 또한 자손이 잘되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모시는 자손은 왕위를 계승하는 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바로 믿으므로 우리의 자손이 왕권을 계승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왕은 자격 있는 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만큼 자격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아내 역시 왕의 아내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재림하실 예수님을 환영할 자격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진리와 온유와 공의가 완전하십니다. 악마를 이기시는 무장을 갖추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신부인 우리는 얼마만큼이나 사랑했습니까. 예수 따라 가며 복을 달라고는 하면서 명령에는 절대 복종을 안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바울과 같이 옛날에 종던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대접을 받으면 나 자신은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고 나를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영육의 자손이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이상적인 남편과 이상적인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혹 과거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잘한 일은 더욱 잘하며 시편 45편의 가정과 같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



97년 부활주일을 맞으며

김 동 석

(목사, 청년1부 지도)

영국의 회중교회 목사인 데일 박사가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체험한 이후로 매주일 아침예배 때마다 부활 찬송을 힘있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를 다니던 한 성도가 그 교회를 출석하고 난 다음에 11월의 어느 주일 아침에도 계속해서 부활 찬송을 부르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그 이유를 물어 보았습니다. 그 때 데일 목사님은 “저는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주일은 그가 살아나신 날이라는 영광된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들의 신앙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아울러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復活)의 확신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글 속에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롬 10:9)라고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죄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고전 15:14).

그래서 교회는 공식적으로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제정하여 1년에 한차례씩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 부활절을 지키는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부활절은 매년 3월 22일부터 4월 25일 사이에 지켜집니다. 이것은 절기상으로 볼 때에 춘분 다음에 오는 첫 만월 후 지키는 첫번째 주일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약 3세기까지는 해마다 부활절을 지켜야 할 일자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의 날카로운 의견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차이였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부활절을 음력의 일자로 정하였고, 서방교회에서는 부활절이 언제나 주일(일요일)인 부활일에 지켜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양력의 일자로 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견의 차이의 해결은 니케아총회(325년)에서 결정되었는데 결국 달과 주중의 날들 다를 수용하여 부활절의 일자는 춘분 다음인 첫 만월 후 첫째주일이 되도록 합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동적인 부활절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좀 더 색다른 의미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절이라는 기간이 교회만이 아니라 부활절 기간에 휴가를 즐기려고 하는 학교와 대학들이 교육계획을 종교적인 휴일과 맞추기 위하여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신앙적으로 보면, 대단히 심각한 위기에 부딪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는 도외시하고 자기 중심의 편리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릇된 생각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의 육체적 부활에 대하여는 의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 중심에 성경적인 부활 신앙이 없으면 아무리 그 외형적인 신앙이 아름답다고 하여도 그 신앙 자체가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임에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 보면,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의심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이 이루어진 그 새벽의 사건이 간략하게나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에 봉인을 하고 파수를 보던 군인들이 놀라운 일을 보았던 것을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벽녘 어두움이 채 가지지 않은 이른 시간에 천사가 내려와 지진 가운데 무덤 문이 열렸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 온 몇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이러한 파수꾼의 놀라운 보고를 듣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하였습니

다. 그 이후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는 헛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주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던 유대인들 가운데 두루 믿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마 28:15).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몇몇 소수의 사람들보다는 못보았고, 혹은 인위적으로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다수의 증인들이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무덤문에 봉인을 하고 지키던 무덤이 비워졌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부활을 웅변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후에 무서워 떨며 다락방에 모여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던 몇몇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그의 부활을 힘있게 증거하며 “우리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행 4:20)고 말하면서 위협이나 채찍질, 감옥에 갇히거나 죽임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의 급작스러운

행동의 변화를 설득력있게 해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에,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 보이심으로 자신의 육체적인 부활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고전 15:4-8).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 베드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도마가 빠진 부활주일 저녁, 도마가 함께 있던 다음 주일 밤, 갈릴리 바닷가의 일곱 제자들, 5백여 성도들, 그리고 승천하시는 날에 모인 120여명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물론 불신앙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란 일시적인 환상을 본 어리숙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주장도 있으나, 그들조차도 여러 사람들이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똑같은 환상을 일관되게 보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올며 예수님을 찾는 여인들에게 천사는 빈 무덤을 나타내 보이며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마 28:6)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예언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선포된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초대교회의 사도 베드로와(행 3장) 사도 바울(고전 15장),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증인들이 이 사실을 힘있게 증거하였고, 그들의 헌신적인 증거 사역의 결과로 오늘날 우리 모두의 성경적인 부활신앙의 바탕이 확립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두의 신앙도 이러한 순교자적인 신앙의 바탕 위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힘차게 증거해야 하겠습니까.



시

부활의 예수 생명의 예수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씻어 줄 은혜를 다 가지고
심장의 진액 짜야 내는 젖새마네 기도
죽음 죽음의 시간은 재촉하고 재촉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께 어린 양
예수당신이 담당하시기 위하여
도수장으로 끌려가고 또 끌려가도다

그때 그 무리들의 소란이 두려워
잔인한 빌라도 예수님을 넘겨 주고
힘겨운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에 예수 지셨네

해로과 빌라도 속사람은 원수이면서
그날 그 시간에는 결사관은 다정한 친구
망치소리 온 우주를 흔들며 큰 못박았네

아픔을 참고 하늘 우러러 하나님께
아들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시며
십자가에 매달린 채 홀로 기도하셨네

찢기고 찢기어 진 십자가 위에서
엘리엘라라 마사바다나 마지않 한마디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순간까지도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죽음에서도 기도하심을 잊지 않으셨네

다 이루었다 고개 떨구고 운명하시사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 놓으신 예수

끌고 십자가에 피우신 보혈의 꽃은
사제절 언제 어디서나 피어나는 사랑의 꽃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영원 영원하시리라

김운섭
(집사, 초동부 교사)



년1부 회원 16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호남선부터 영동선까지를 9개 구역으로 나누어 한 팀에서 한 구역을 맡아 2인 1조로 밀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4영리를 설명했다.(이때 밀기로 했던 분들은 청년1부에서 따로 관리를 하게 된다.) 전도를 마친 이들은 한 곳에 둥그렇게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로 마쳤다. 이 전도는 모든 회원들이 직접 전도를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복음전도 훈련과정이었다. (글 / 박주영 기자, 사진 / 장세진 기자)

새 봄을 맞으며 청
년1부에서는
지난 3월 23
일(주일) 오
후 3시부터
고속터미널에
서 노방 전도
를 했다. "주
예수를 믿으
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
리라" (행
16:31)라는
말씀을 가지
고 감동적 지
도 목사님과
전채 부장 장
로와 함께 청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수리남 안석렬 선교사 2



곳곳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

긴급기도 요청

약 2년 전 결혼한 리카르도와 사브리나를 기억하시는지요? 그동안 열심히던 리카르도가 작년 8월 이후 출석을 잘하지 않아 몇 차례 심방하여 권면을 했었는데 결국은 신경에 염증이 생겨 꼼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심방을 가니 자기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다시 교회에 나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부모가 와서 리카르도를 자기네가 치료한다고 자기집으로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 아버지는 마술을 하는 인도네시아의 전통 종교의 지도자 중 하나입니다. 자기들의 치료방법으로 병이 더 악화되자 어느날 새벽 응급실을 통해 입원을 시켰는데 처음부터 사브리나를 원치 않았던 부모는 며느리의 병원출입을 중지시켰고 결국에는 아들에게 이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퇴원한 리카르도는 부모집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교회는 출석하지 않으며, 자기 아버지가 병을 고쳤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얻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다시 사탄에게 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급해 한국 중현교회 등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뿐인 사브리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충현세계선교회가 출동을 ...

저희가 간직하고 있는 큰 기쁨 중 하나는 충청교회 선교부에서 이곳을 방문하고자 한다는 것에 대한 거다림입니다. 94년 안식년 때부터 선교지 방문과 협력 선교사를 요청했으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웠었는데 이번 마담교회의 창립에 배에 참석을 요청드려더니 꽤히 선교부에서는 결정이 된 것같고, 4월중에 한번 이곳에 오실 것 같습니다. 너무 외롭다보니 저희들이 해놓은 일도 없으면서 웅감하게 요청해 놓고 기쁨과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선교부가 더욱 수리남을 잘 이해하는 기회가 되며, 저희들도 큰 위로와 힘을 얻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료소와 학교를 위해

2년 전인 95년 2월에 진료소와 학교를 위한 서류가 장관들이 결재를 미루고 있어 장관실 책상 위에 놓인 채 잠자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소위 선물(?)을 바쳐야 한다기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 안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장관의 마음골 주창하셔서 새인화도록 만드실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문둥병자도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듯 장관이 속한 세월대에 하나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사인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과 주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따에 호구조사를
시작함

선교차량을 타고 2월 4일부터 제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마따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길서름도 없고, 짐에 호수도 없이 도두가 '마따'

라는 한 주스로 통하기에 지도도 만들고
집집마다 방문해 가족사항을 물어서 교
적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세대당 성
경책을 한 권씩 나누어 주면서 전도의 걸
을 열고 있으며, 가족마다 가족사진을 찍
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족마다 한 장씩
거저 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사진을 별로 찍을 기회가 없어
서인지 사진을 찍는다고 하니 다시 들어
가 옷을 갈아 입고 나오는 열심들을 보아
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방문하며 저들의
사는 모습과 환경을 직접 대하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열대 사바나에 해당하는
이곳은 모두가 하얀 모래위에 집을 지었
고 물은 빗물을 받아서 먹기에 병약하며,
농사는 화전을 하기에 점점 정글로 들어
가며 밭을 만들어서 약 1시간 정도씩은
걸어가 밭을 돌보고 돌아옵니다.

전에 선교편지를 통해 '부러진 십자가'에 대해 읽으신 기억이 있으실 줄 압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누가 십자가를 부러뜨렸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일화를 보면서 미움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념의 원하심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 3시간씩 저 혼자 정답을 운전하고 다니며 저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비포장길을 마음대로 달리며, 깊은 모래밭을 빠지지 않고 차고 나가며 깊은 물웅덩이도 넉넉히 통과하는 차와 같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난관을 불리치고 달린기를 기도합니다.

수리남 소식

저희들의 기도 중 문선명 집단에 대한 기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옆나라 가이아나에 120명의 일본여자들이 와서 포교를 하고 있으며, 수리남에도 많은 일본여자들이 축조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수리남에 센터를 설립하려고 한다 고도하는데 수리남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한인교회 소식

한인교회 김목사님께서 떠나시기로 하고 후임자가 올 때까지 계시기로 했는데 얼마전 교인들이 장로교단에서 목사님을 청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수리남 선교를 원하시며 한인교인들을 키워주실 교회가 목사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길 바라며 좋은 선교의 동역자가 오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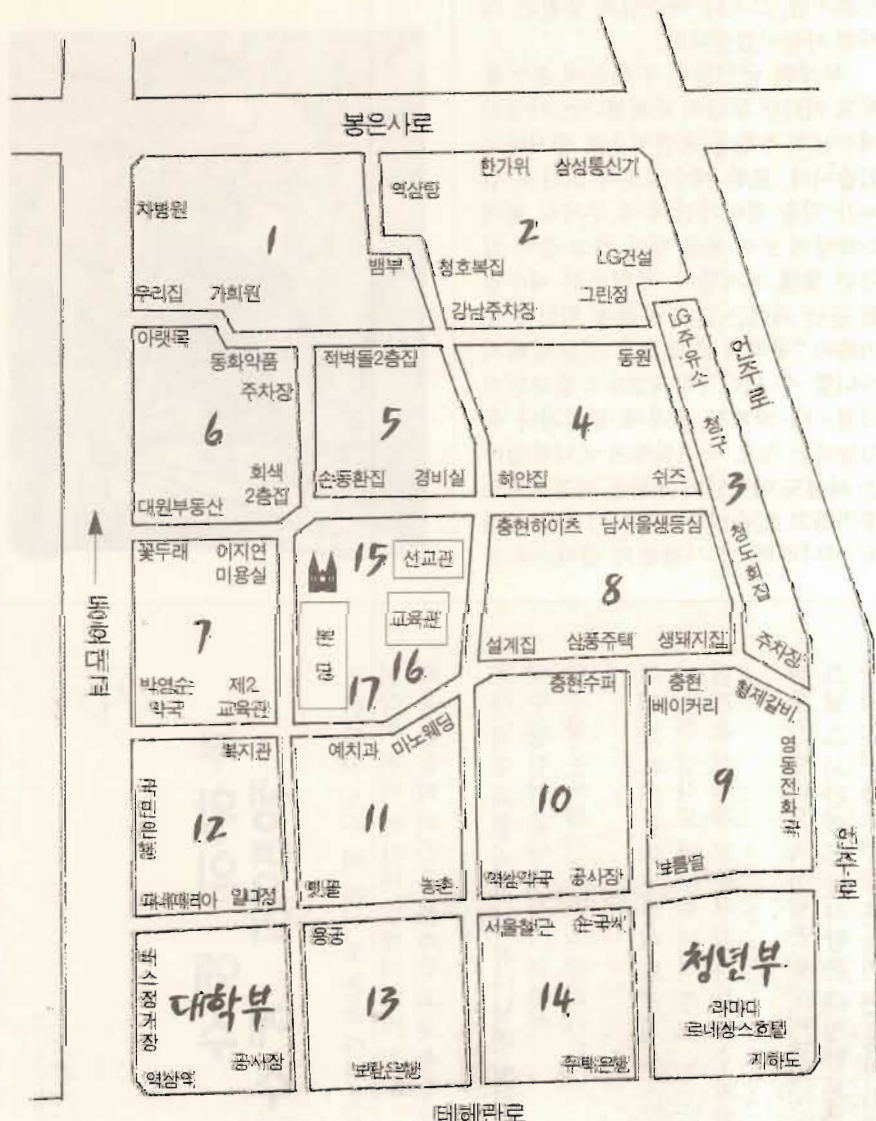
안석렬 선교사·올림

▼마지막인디언촌에서 전도하는 모습



봄철 교회당 주변
대청소 교구별 구획도

- 청소기간 : 4월 1일~5일(가급적 근거리 교구는 1, 2일로, 원거리 교구는 3, 4일로 날짜를 정하여 봉사위원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계획 : 교구별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실시합니다.
- 청소 도구, 쓰레기 봉투, 어깨띠 등은 동문 경비실 앞에서 분배합니다.
(아래 숫자는 교구명)



태해관문